

굿모닝인천

MAY 2022
INCHEON MONTHLY MAGAZINE
VOL.341

5

INCHEON MONTHLY MAGAZINE

2022.5.8.8.8

2022.5.11.11.11



표지사진 인천꽃들



장 프랑수아 밀레(1814~1875), 첫 걸음마, 1858, 파스텔, 32×43cm, 미시시피 로렌 로저스 미술관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푸른 오월을...”

아이가 이제 막 첫 걸음을 떼려고 하네요. 아빠는 하던 일을 멈추고 팔을 쭉 뻗어 아이를 부르고요. 엄마는 아이가 행여 넘어질까 뒤에서 팔을 받쳐주고 있어요. 부모에게 이보다 더한 감동이 있을까요. 이들의 행복한 순간이 푸르러가는 계절과 함께 파스텔로 채색되어 익숙한 유화와 다른 느낌을 주네요.

미술에 큰 관심이 없더라도 밀레의 ‘만종’과 ‘이삭줍기’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는 19세기 중반 프랑스 바르비종을 중심으로 땅과 함께 살아가는 농부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표현했어요. 그의 그림이 목가적이고 때론 종교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면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작가는 신화, 성서, 역사 속 인물과 사건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맞췄어요.

이 그림에는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밀레를 좋아한 빈센트 반 고흐가 이 그림을 모사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 작품뿐 아니라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 ‘한낮의 휴식’ 등 많은 작품을 자기만의 스타일로 그렸어요. 두 거장의 작품을 나란히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아이는 이렇게 걷기 시작하고 말을 하고 공부하면서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겠죠. 부모는 그 기간 삶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육체도 정신도 거꾸로 작아질 테고, 나중엔 서로 비슷해지고 또 어느 순간 아이가 훌쩍 더 커 있고, 그런 게 인생이고 자연의 순리겠지만요. 가정의 달, 애투함과 그리움이 더해만 가네요.

글 김성배 인천시립미술관팀장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22년 5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윤병철(소통기획담당관)

편집장 김진국

편집위원 정경숙·최은정

사진 김성환·류창현·임학현·유승현·김범기

디자인·제작 하나로애드컴

발간등록번호

54-6280000-000080-06

〈굿모닝인천〉은 웹진(www.incheon.go.kr/goodmorning), 인터넷 서점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지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일부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 주소 변경 및 해지 문의: 인천시
소통기획담당관실 032-440-8306



5월호, 이렇게 만들었어요

장미 향이 은은한 5월이 찾아왔습니다. 가정의 달 5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린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반려동물도 가족입니다. 너무도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식구이지요. <굿모닝인천> 5월호는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삶을 꾸려가는 가족을 찾아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36년간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로운 정년을 맞은 김석우 인천시 청사 방호장이 지나온 공무원의 삶을 반추했으며, 이젠 얼마 남지 않은 인천 송도 갯벌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화폭에 담아 보았습니다. 5월은 ‘부처님이 오신’ 달이기도 합니다. 계절의 여왕 5월 속 자비로운 부처님의 빛깔을 사진으로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 취재와 촬영 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04 인천 미소 올해 첫 벚꽃 구경, 〈굿모닝인천〉 4월호 외	42 옴니버스 소설 아무도 울지 않는 밤 ④ 우리가 마주한 밤
05 시민이 소개하는 우리 동네 송도 센트럴파크	45 새 책 〈첫눈이내게 왔을때〉, 〈너를 위한 증언〉
06 가정의 달 특집 1 새로운 가족, 반려동물	46 문화 캘린더 이기원(murim) 장르의 확장 외
14 가정의 달 특집 2 슬기로운 반려생활	48 시정 뉴스 버리는 장난감 블록 ‘e음 포인트’로 바꿔드려요 외
16 스케치에 비친 인천 송도 갯벌	50 의회 뉴스 제279회 원포인트 임시회 열어 외
22 화보 오월의 산사	52 컬러링 인천 영흥도
26 코로나19 시대, 빛나는 인천 ④ 인천시민대학 ‘시민라이프칼리지’	54 인포 박스 서구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연중 상시 모집 외
30 환경특별시인천 헌 옷 교환하는 ‘21% 파티’	56 소소한 인천사 새품에서 섯벌로, 효성동 외
32 인천 문화재 이야기 ⑩ 교동향교	57 仁生 사진관 소래습지생태공원의 봄
33 문화 줄인 죽산 조봉암 사진전	58 인천의 아침 우크라이나사 사바짚과 제물포구락부
34 인천수영전통학교를 찾아서 ② 인천신광초등학교	59 한 컷 인천 인천꽃들 꽃밭에서
38 공무원이 간다 김석우 방호장	읽어주는 〈굿모닝인천〉 음성 지원 이북 바로 가기
40 정책 만화 노인 일자리 많은 인천	



인천미소

—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인터넷방송 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enews.incheon.go.kr

인천시 SNS

검색창에 **인천** 을 입력하세요.

www.facebook.com/incheon.gov



blog.naver.com/incheontogi



www.youtube.com/user/icncityhall



twitter.com/incheon_gov



story.kakao.com/ch/incheoncity



'인천시 미디어'



www.instagram.com/incheon_gov



www.weibo.com/incheon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 목소리’

올해 첫 벚꽃 구경, 〈굿모닝인천〉 4월호

〈굿모닝인천〉 4월호를 우편함에서 꺼내는 순간, 얼굴에 미소가 확 퍼졌습니다. 벚꽃 가득한 표지에서 봄의 정취를 한껏 느꼈거든요. 거리 곳곳에서 벚꽃을 만나기 전에 미리 〈굿모닝인천〉을 통해 올해 첫 벚꽃 구경을 했지요. 매달 인천의 크고 작은 이야기와 풍경을 전해줘 애독하고 있습니다. 5월의 표지도 기대하겠습니다.

— 명인호 부평구 장제로

아름다운 기타 선율에 취해

〈굿모닝인천〉 4월호를 읽다가 기타리스트 박규희 님의 인터뷰를 읽고 오래도록 잊고 지낸 기타를 꺼내보았습니다. 세계적인 기타리스트의 실력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한때 기타를 사랑했던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대가의 경지에 이르러서도 항상 배우고 공부한다는 이야기에 저의 게으름을 반성하며 오늘부터 기타와 다시 함께해보려고 합니다.

— 최진희 서구 서곶로

수수하고 소소한, 그래서 좋은

볼거리, 읽을거리가 참 많은 요즘입니다. 스마트폰만 열어도 SNS에 온 정신을 빼앗기고, 넷플릭스며 티빙이며 다양한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덕분에 하루 종일 재밌거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런 현란하고 화려한 콘텐츠에 빠져 있다가 마치 정화하듯 〈굿모닝인천〉을 펴게 됩니다. 수수하고 소소해서 참 좋습니다.

— 김민지 계양구 계양산로

플로깅, 함께하실래요?

운동 삼아 집 근처 공원에서 빠른 걸음으로 산책도 하고 컨디션 좋은 날엔 가볍게 뛰기도 하면서 겨우내 붙은 살을 빼고자 노력했습니다. 한동안은 그 재미에 공원을 찾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지루해져 가기 싫더군요. 그때 플로깅을 시작했습니다. 조깅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일석이조였습니다. 〈굿모닝인천〉 4월호 트레킹 기사 잘 읽었습니다.

— 박예린 미추홀구 경인로



도심 속 피크닉

글 최지은(연수구 컨벤시아대로)

송도 센트럴파크



송도에 산 지도 어느덧 5년이 다 되어간다. 직장 때문에 이사했다가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도 여전히 송도에서 살고 있다. 예전엔 고만고만한 집이 이어진 주택가에 살다가 고층 아파트로 둘러싸인 송도에 오니 처음엔 영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다. 반듯하고 잘 정돈된 주변 환경이 편리한 건 사실이었지만 왠지 정이 가지는 않았던 것 같다. 몇 번의 계절을 지나고 해를 거듭하면서 송도는 이제 편안한 우리 동네가 다 되었다. 자주 가는 빵집이며 떡볶이집이 생기고, 사장님들과 가볍게 안부를 나누는 사이가 되면서 애정이 쌓여갔다. 특히 주말이 되면 동네에 대한 애정이 한층 커지곤 한다. 굳이 멀리 가지 않고 센트럴파

크에만 가도 주말을 재미있게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출지도 덥지도 않은 때는 할 일이 더 많아진다. 지난 주말에는 모처럼 센트럴파크 중앙호수에서 보트를 탔다. 언제부턴가 보트들이 다채로워졌는데, 투명보트며 구르미보트며 뭘 선택할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매번 신기하다 생각한 문보트를 골랐다. 볼록한 초승달 모양의 보트를 타고 해 지는 센트럴파크를 바라보니 이보다 더 여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에는 G타워 꼭대기에 있는 전망대에도 가볼 테다. 집 근처라는 이유로 매번 미루기만 했는데, 올봄엔 송도를 제대로 즐겨볼 참이다.

너와 함께 사는 삶이라는 내 인생에 최고의 선물

너와 함께 있으면 집안에 언제나 생기가 돈다. 천진무구한 새카맣고 동그란 눈을 바라보노라면 가슴이 말랑말랑해진다. 쿠션을 물어뜯어 숨이 터져 나와도, 아무 데나 볼일을 봐도 예쁘기만 하다. 슬플 땐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너.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반려동물은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집안의 귀여운 막내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행복한 반려동물 가족을 찾아갔다.

글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유승현 포토 디렉터

하늘나라에서 보내준 선물, 유기견 겨울이

지난 겨울 진미정(51) 씨 가족과 16년을 동고동락한 ‘미루’는 하늘의 별이 됐다. 그날 밤, 부평구 동물보호센터 짱구네동물병원에는 새끼 진돗개가 길에서 떨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머칠을 울기만하다 원장님 전화를 받고 동물병원에 겨울이를 보러 갔는데 미루랑 꼭 닮았더라고요. 보자마자 ‘아, 내 아이구나’ 느낌이 왔어요.”

진 씨 가족과 겨울이는 서로에게 새로운 가족이 돼 가족을 잃은 슬픔을 어루만져줬다. 재롱도 곧잘 부리고 말귀도 척척 알아듣는 겨울이 덕분에 적막하던 집에 예전처럼 생기가 돌았다. 2개월 아기 때부터 진 씨 부부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자란 겨울이는 동물판매업소(펫샵)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건강하고 사회성이 좋다. 외모도 제법 늙름하다. “겨울이가 우리집 보물 1호예요. 평생 꽃길만 걷게 해줄 거예요. 길 위의 더 많은 생명이 소중한 가족을 만나 사랑받고 자랐으면 좋겠어요.”

짱구네동물병원(부평구 동물보호센터)

📍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356 📞 전화번호 032-511-5515



반려견 겨울이와 진미정 씨,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이고 선물이다.



똥이의
'해피 하우스'



인천서흥초등학교 졸업 앨범.
아기 돼지 똥이가
아이들 품에 안겨 있다.

추억의 페이지마다, 아기 돼지 똥이

‘똥이’는 손바닥만 할 때 인천서흥초등학교에 온 귀여운 미니 돼지다. 4년 전 심준희(45) 교사와 반 아이들이 데려왔다. 짧은 다리로 실룩거리며 계단을 곤잘 올라 두 살 때까지는 온 학교를 누비며 수업도 듣고 체육대회도 함께했다. 졸업 앨범에도 올라 있을 정도다. 아이들은 똥이 그리기 대회, 시 쓰기 대회를 열고 돌봄 동아리 ‘똥아리’도 만들었다. 똥아리는 아침에 일찍 등교해 똥이에게 밥을 주고 방학 때도 순번을 정해 똥이를 보살핀다. 이 과정에서 의견을 내고 조율하는 법, 생명 존중의 의미와 책임감을 자연스레 배운다.

아이들은 똥이와 정이 깊이 들었다. “똥이와의 추억이 많아요. 똥이 보고 싶어서 졸업하고도 학교에 올 것 같아요.” 박선영(12) 어린이의 말에 추서율(12) 어린이가 싱글거리며 화답한다. “그럼 선생님 돼서 매일 만나면 되겠네.” 그 순간, “꿀꿀, 꿀꿀꿀.” 똥아리 친구들에게 맞장구 치듯 똥이가 기분 좋은 소리를 냈다.

‘똥아리’ 친구들에겐 언제 꺼내봐도 좋을 똥이와의 추억이 차곡차곡 쌓여있다.
김하은, 추서율, 박선영, 오서진 어린이(왼쪽부터)



우리의 장밋빛 보금자리, 남촌동 장미빌라

반려견 ‘까루’, 반려묘 ‘소금이’, 크레스티드 게코 ‘시크·다크·밀크’, 레오퍼드 게코 ‘순이·정이·난이’, 납테일 게코 ‘알망·뿔망·꼬망’. 강영민(27) 씨 집엔 반려동물 대가족이 모여 산다. 6년 전 만난 까루가 맏이고, 몇 달 전 입양한 소금이가 막내다. 호기심 많은 소금이는 까루를 물고 뜯고 하지만 무던한 까루가 잘 받아줘 평화롭기만 하다. 침실 한편엔 서른 마리가 넘는 파충류 가족이 살고 있다.

오후 8시쯤 귀가하는 강 씨의 고단한 하루를 어루만져 주는 건 가족들이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품으로 달려들어 반겨주는 까루와 저만치서 지켜보다 슬쩍 다가와 다리 사이에 살을 부비는 소금이의 시간 차 애교에 강 씨는 마냥 행복하기만 하다. “사업에 실패하고 힘들 때,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인생의 고비마다 반려동물을 보며 견뎌어요.” 그의 꿈은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해 반려동물과 마음껏 뛰어노는 것. 강 씨네 대가족은 오늘도 작은 빌라에서 살을 맞대고 오순도순 꿈을 키운다.

맏이 반려견 까루, 의젓하고 무던해 집안이 평화롭다.



강영민 씨가 까루, 소금, 순이와 단란한 한때를 보내고 있다.



거리 두기 하다가도 잠은 꼭 같이 지는 반려견 까루와 반려묘 소금이



레오퍼드 게코 순이는 침착하고 순하다.

작은 동산 속 우주, 나비의 세계

부평구 청천동 장수산 일대 50만㎡에 푸르게 펼쳐진 생태숲, 인천나비공원. 그 안에서 곤충과 동고동락하는 이형범(37) 씨는 나비 전문 사육사다. “나비가 알을 낳는 식물, 흡밀 식물 등을 심어 가꾸고 번식장·전시실·나비생태관 등을 관리해요. 큰줄흰나비, 호랑나비, 긴꼬리제비나비 등 연간 3만 마리 정도를 번식시켜 방생하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곤충이 좋았다. 금색, 녹색으로 치장한 자태가 아른거려 눈만 뜨면 풀밭으로 달려갔다. 처음 채집한 방아깨비, 애지중지 키워 번식시킨 넓적사슴벌레에 대한 기억도 생생하다. “곤충은 자세히 관찰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비로움으로 가득 찬 존재예요. 아름다운 나비의 날개엔 생존 전략이 숨어 있어요. 온도에 민감한 편이라 기후변화에 따라 터를 옮기며 천적인 새의 눈에 띄지 않는 문양과 움직임으로 진화했죠.” 나비는 그에게 둘도 없는 친구, 신비로운 우주, 평생 함께할 동반자다. 그 덕분에 인천나비공원에 가면 언제나 신비로운 나비를 보는 호사를 누릴 수 있다.

인천나비공원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26-47 ☎ 전화번호 032-509-8820



나비는 그에게 둘도 없는 친구, 신비로운 우주, 평생 함께할 동반자다.

전갈 디오라마 전시물. 이형범 씨의 작품이다.(좌)
꽃에 앉은 양끝검은표범나비(우)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곤충과 생활하는 그

당신은 좋은 가족이 될 준비가 되었나요?

반려동물 입양을 고려하고 있다면 여러 사항을 자세히 따져본 뒤 결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 생명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책임감’이 중요하다. 슬기로운 반려생활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소개한다.

정리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 참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



1 마음가짐

거주 형태

혼자 사는 경우

- ☒ 정기적인 산책이나 놀이를 함께할 수 있나요?
- ☒ 반려동물을 기른 경험이 있나요?
- ☒ 반려동물을 위해 공부할 각오가 되어 있나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 ☒ 반려동물을 함께 돌볼 가족 구성원이 있나요?
- ☒ 가족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훈련하는 데 동참할 수 있나요?
- ☒ 결혼을 앞둔 경우, 배우자가 반려동물 털에 민감하지는 않나요?

경제적 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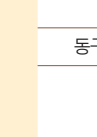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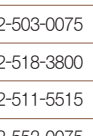
- ☒ 한 달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자기 수입과 비교해 생각해 보았나요?
- ☒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한 지출에 대비할 수 있나요?
- ☒ 개나 고양이의 수명은 대략 10~15년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봐 줄 수 있나요?

2 알레르기 체크

- ☒ 가족에게 개나 고양이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은 없나요?

3 견종 선택

- ☒ 반려인의 생활 패턴과 성격, 환경 등에 맞는 견종 알아보기
- ☒ 자신에게 맞는 견종을 찾은 후 해당 견종에 대해 미리 공부하기

	집을 지키는 데 적합한 견종	
	셰퍼드, 도베르만,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등	
	털 빠짐이 적은 견종	
	베들링턴테리어, 푸들, 슈나우저 등	
	활동량이 많은 견종	
	불테리어, 콜리, 세인트버나드, 아이리시, 세터, 알래스칸맬러뮤트, 비글, 닥스훈트 등	
	맹견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인천시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 보호소)

담당	보호센터명	주소	전화번호
서구	가정동물병원	가정로 346 (가정동)	032-575-0833
	우리동물병원	서곶로 349 (연희동)	032-566-0075
중구	신공향동물병원	운남동로3번길 9 (운남동)	032-751-4598
	경동동물병원	개항로 68 (경동)	032-765-9988
부평구	늘푸른동물병원	후정동로 60 (삼산동)	032-507-0075
	삼산종합동물병원	체육관로 40 (삼산동)	032-330-0075
	세림동물병원	원적로 392 (산곡동)	032-503-0075
	조재진동물병원	원적로 409 (산곡동)	032-518-3800
	짱구네동물병원	평천로 356 (갈산동)	032-511-5515
계양구	신영재동물병원	장제로 923 (병방동)	032-552-0075
강화군	베스트동물병원	강화읍 강화대로 217 (강화읍)	032-934-9340
미추홀·연수·남동구·옹진군	인천광역시 수의사회	계양구 다남로165번길 56 (다남동, 유기동물보호소)	032-515-7567

나는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반려동물은 소중한 생명이다. 반려동물을 함부로 버릴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맹견을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필수다.(위반 시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반려동물 분실 시

반려동물 찾기



- 잃어버린 장소를 중심으로 전단지를 붙이거나 근처 동물병원과 동물보호센터 확인
- 내 주변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검색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실 신고를 하거나 군·구청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문의
-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중인 동물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함
-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동물등록 변경(분실) 신고 필수
- 동물보호 목적의 법인이나 단체 홈페이지 확인

2 유기·유실동물 발견 시

유기·유실동물 신고

- 길을 잃고 방황하는 반려동물 발견 시 군·구청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 해당 지역의 동물보호센터나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포함)에 동물 위탁

3 유기동물 입양

- 동물보호센터 검색 및 센터에 보호 중인 동물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
- 군·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 동물 입양 시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 등 입양 제반 비용 지원(최대 15만원)





땅에 갇힌 바다

— 우리가 아는 송도가 아니다. 개발이 한창인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무섭게 내달리는 덤프트럭을 피해 공사장 안으로 들어간다. 척박한 땅을 지나자 눈앞에 수평선이 아득히 펼쳐진다. 지금 발 딛고 선 이 땅도 한때는, 바다였다.

오전 9시, 흙먼지를 날리며 트럭이 하나둘 도착한다. 아직, 바다의 들숨과 날숨에 호흡을 맞추며 살아가는 척전어촌계 사람들이다. 물참엔 나룻배질을 하고 잣감이면 걸어다니던, 멀고도 가까운 바다 ‘먼우금’.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연수구 옥련동, 청학동, 동춘동을 아우르는 너른 바닷가 벌판엔 백합이며 모시조개, 바지락, 동죽, 꽃게, 낙지가 지천으로 널려 있었다. 연평도 계보다 송도 계를 더 높이 쳐주던 시절이었다.

박길준(78) 척전어촌계장은 소암마을에서 나고 자랐다. 지금 라마다 송도 호텔이 서 있는 그 자리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그 앞까지 파도가 밀려들었다. “황금 바다였어. 그 귀한 백합을 20kg, 30kg씩 거뜬히 캐냈으니까. 1kg당 가격이 5,000원, 당시 월급쟁이 한 달 벌이를 하루에 다 벌었지.”

몸만 부리면 배는 안 굶고 살았다. 아이들도 일찌감치 학교 대신 바다로 나갔다. 바다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 제 모든 것을 내주었다. 기꺼이 품어 안았다. 그 바다가 사라져간다.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땅끝 바다의 시작점.
눈앞에 수평선이 아득히 펼쳐진다.
지금 발 딛고 선 이 땅도 한때는, 바다였다.

송도 갯벌에서 캔 키조개를 들어 보이는 오세철 씨(왼쪽)
거대한 신도시 앞바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치열한 삶의 몸부림이 있다.(오른쪽)



사라진,
사라질 그 바다

‘인천, 그림이 되다.’ 낡은가 하면 새롭고, 평범한가 싶으면서도 특별한. 골목길만 지나도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도시, 인천. 추억이 그리움으로, 때론 일상으로 흐르는 공간이 작가의 화폭에 담겼다. 그 따뜻하고 섬세한 붓 터치를 따라 인천 사람들의 삶으로 들어간다. 이번 호는 사라진 바다를 그리며, 사라질 바다에서 살아가는 ‘먼우금’ 사람들. 그 짙 내 가득한 삶을, 최원숙 화백이 그렸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임학현 포토 디렉터

송도어촌계2,
2020, 혼합 재료, 57.5x42cm
물때만 맞으면 밤이고 새벽이고 바다로 달려나가는 삶.
먼우금 사람들은 평생 차다찬 바람 맞으며 갯벌에 뒤엉켜 살아왔다.





송도에 출제,
2020, 혼합 재료, 72x42cm
송도 갯벌은 만우금 사람들에게 눈물겨운 생존의 터전이다.
그 안에서 하리가 굶고 주름살 폐도록, 평생 삶을 일구어왔다.

조그라든 바다,
그래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오늘을 살아낸다.
높다란 방파제 너머 생존의 장으로,
고작 스티로폼 조각에 몸을 맡기고 바다로,
바다로 나아간다.

다시, 물에서 물으로

— 썰물이 지면서 갯벌의 굴곡이 어지럽게 드러난다. 바다로 나가는 대신 때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바빠 움직이기 시작한다. 바다가 품을 허락하는 시간은 단 세 시간. 서둘러야 한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온몸이 갯벌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다. 바닷사람들이 열 발자국 성큼 나가는 사이, 간신히 두세 걸음을 땔 뿐이다. 아차, 갯벌에 발목을 잡혔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지형근 어르신이 안쓰러워하면서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한다. “매일 옷 말끔히 차려입고, 차 끌고 출근할 거 아니야. 뭇 하러 예까지 와서 흙탕 칠하며 사서 고생이야.” 그 괜한 고생길이, 누군가에겐 고단해도 쉬지 않고 감당해야 하는 삶의 일부다.

바다의 시간이 끝나간다. 순간 갯벌에 물이 차오른다. 갯길을 따라 스티로폼을 끌고 사람들이 하나둘 물으로 향한다. ‘돼지엄마’가 일등으로 작업복을 벗는다. “요즘, 잡이가 영 시원치 않네.”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이맘때면 주꾸미며 꽃게가 척척 걸려들어야 한다. 그래도 6kg짜리 광어를 낚았으니 일진이 그리 나쁘진 않다. 이웃에게 잡은 삼세기를 척하고 건네며 인심도 쓴다. 이 맛에 바다 일을 놓을 수가 없다.

그래도, 바다로 바다로

하루 일하면 고작 2~3만 원이 손에 쥐여진다.
그래도 여전히 품을 내어주는 바다가 고맙다.



— 동막, 척전, 시듬물, 신촌, 박젓뿌리.... 송도 갯벌에 기대어 먹고살던 마을이다. 지금은 지도에서 사라졌다.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1980년대 한적하던 바닷가 마을에 포클레인이 나타나 대대로 살던 집들을 때려 부수었다. 1985년 남동구 소금기 가득 뱀 물기 어린 땅이 콘크리트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그 위로 시커먼 공장 굴뚝이 솟아났다. 바다가 메말라갔다. 끝이 아니었다. 1994년엔 덤프트럭이 송도 바닷가에 실 새 없이 오갔다. 그리고 오늘, 번쩍번쩍 빛나는 거대한 신도시가 들어섰다.

“꿈에도 생각 못 했어. 내가 살던 동네, 이 바다가 사라져버릴 줄은....” 바다는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줄로만 알았다. 이제, 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한정 어업면허가 만료되는 2027년이면 바다를 영영 떠나야 한다.

그래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단히도 오늘을 살아낸다. 어른키의 세 배는 훌쩍 넘는 가파른 사다리를 타고 방파제 너머 삶의 터전으로 향한다. 고작 스티로폼 조각에 몸을 맡기고 바다로, 바다로 나아간다.





송도아출개4,
2020, 아크릴, 45.5x33cm
새가 도시의 하늘 위를 날다 갯벌 위에 앉는다.
바다가 도시가 되어온 시간, 자연은 앞으로 또 무엇을 내주어야 하는가.



삶이 계속되는, 송도 갯벌.
뒤로 보이는 인천대교의 실루엣이 장엄하다.

거대한 도시에 떠밀려 쫓겨나든 바다에서도 삶은 계속된다.
하리 한 번 꺾지 않고 쉼 없이 갯일을 하는 먼우금 사람들의 등 뒤로 보이는 인천대교의 실루엣이 장엄하다.
그렇게 우리가 잊고 있던, 송도 바다 한편에 봄이 흘러가고 있다.

육지가 아직,
‘바다’라면

— 세상에 절실하지 않은 삶이 어디 있으랴. 하지만 안개가 끼고 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기어이 바다로 나가야 하는 것이 바닷사람의 운명이다. 그리고 어떤 이는 돌아오지 못했다.
오세철(59) 씨의 아버지는 바다에서 생애 마지막 길을 떠났다. 1976년을 한 달 남긴 겨울, 짙은 해무가 온 바다를 휘덮은 날이었다. 서울 사는 고모에게 줄 갯것을 캐오겠노라며, 집을 나서던 뒷모습이 그가 본 아버지의 마지막이었다. 다섯 형제가 아버지만 바라보며 살았었다. 삶을 지탱해야 했다. 어린 동생들은 바다 근처에도 못 가게 하면서, 아버지를 삼켜버린 갯벌에서 악착같이 삶의 희망을 캐냈다. 그의 나이 열두 살 때였다. 어느덧 육십이 다 된 아들은 오늘도 ‘아버지의 바다’를 지킨다.

앞으로 5년.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를 내어주는 대신, 인천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도시가 됐다. “바다를 딛고 우뚝 솟은 아파트 단지를 보고 있으면, 어느 날은 신기루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파트 좋지. 하나 건물이 높이 솟으면 그 옆엔 그늘이 지기 마련이야.” 오 씨의 집은 낮은 빌라촌에 있다. ‘조개딱지’가 있어도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그들 세상이 될 수 없었다.
갯벌과 땅, 그 가치의 무게는 어디로 기우는 것일까. 내일에서야, 그 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림 최원숙

인천에는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바다가 있다. 동해에서 떠오른 태양은 세상이 검기울면 서해 너른 바다, 갯벌에 머문다. 지는 해가 머물러 흐르는 그곳엔, 평생 갯벌에 뒤엉켜 살아온 먼우금 사람들이 있었다. 작가는 송도국제도시 개발의 뒤편길 어디인가로 떠밀려갔을 그들 삶을 이야기한다. 동덕여자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수십 차례의 개인전을 열고 아트페어에 참가하며 그림 안에서 살고 있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회원이자 인천미술협회 이사다.



송도 바다에는 아직, 마천루가 즐비한 도시와는 다른 시간이 흐른다.

맑고 깊고, 그윽하 여라

봄물이 한창 올랐다. 맑은 하늘에 흰 구름이 둥둥,
봄꽃이 둥둥 떠다닌다. 맑고 깊은, 오월의 산사로
향한다. 불자가 아니어도 좋다. 마음의 위안을 찾
는 이라면 누구라도 기꺼이 품에 안으니, 예서라면
잠시 모든 걸 내려놓아도 된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류창현 포토 디렉터





오월의 산사

마음의 도량을 닦으며 비움으로써 채운다.

— “똑똑 또르르륵, 똑똑 또르르륵...” 전등사^{傳燈寺} 봄바람에 실려온 목탁 소리가 산사를 깨운다. 은연히 흔들리는 풍경 소리. 세상 모든 소음이 사그라든다. 부슬부슬 내리던 이슬비도 소리를 낮춘다.

천년 고찰, 그 안엔 육백 살, 오백 살 나이 든 은행나무가 있고, 큰 나무들이 만들어내는 깊고 그윽한 숲이 있다. 봄이면 도처에 꽃 무리가 진다. 밀려드는 꽃향기. 아, 봄이 무르익었다.
성문을 지나 경내에 다다른다. 다사한 햇살 사이로 대웅전^{大雄殿}이 모습을 드러낸다. 고요한 산사, 처마 끝 풍경 소리가 한가롭다. ‘텅 빈 충만.’ 비움으로써 채운다. ‘없음’으로 ‘있다’. 집착과 욕심, 어리석음을 버리면, 그 안에 기쁨과 행복이 차오른다. 밖으로 향하던 마음이 조금씩 내 안으로 움직인다.

꽃이 진 자리에 연등이 피어났다. 봄, 하늘에서 본 전등사.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연등을 매달고 있다.



—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 보문사^{普門寺} 중턱 마애석불 가는 길엔 425계단이 가파르게 나 있다. 기도처로 향하는 길이 이렇듯 험한 건, 자신을 낮추고 돌아보라는 뜻일 테다. 바깥세상에서 멀어질수록 시끄러웠던 마음이 잠잠해진다. ‘나를 찾고 싶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 바랍니다’... 눈썹바위 아래 차가운 돌바닥에 엎드려, 가슴에 담아둔 이야기를 하나둘 풀어놓는다. 금빛 연등에 담긴 소망이 바람결 따라 흔들린다.

낙가산의 밤은 빨리 찾아온다. “딩..., 덩...” 저녁 종성^{鐘聲}이 경내에 울려 퍼진다. 큰 나무를 돌아 도량을 지나 바람이 선들선들 부는 산 아래쪽으로 걷는다. 어둑어둑한 처마 밑에서 흘러나오는 풍경 소리가 점점 멀어져간다.

꿈, 삶, 미래

배움엔
한계가
없다



'시민라이프칼리지' 시민학생 모집은 일주일 만에 조기 마감됐다.
온시민캠퍼스 '해양문화아카데미' 노형래 강사(가운데)와 김미숙(왼쪽), 이수정(오른쪽) 학생.

다시 일상으로. 2년 1개월, 757일 만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마침표를 찍었다. 길고 힘든 시간이었다. 그래도 잘 버티어왔다. 이제 팬데믹을 넘어 위드 코로나, 엔데믹 시대로 접어든다. 잠시 주춤했지만, 삶에 대한 열정은 여전히 뜨겁다. 인천시민대학 '시민라이프칼리지'에선 배움에 한계선을 긋지 않는다. 평생 '배움'으로 인천시민의 삶과 꿈, 미래를 연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김범기 자유사진가

인천시민대학 '시민라이프칼리지' 캠퍼스



- ① **분부캠퍼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032-722-7238
- ② **온시민캠퍼스**
인천대학교 032-835-9564
- ③ **청년시민캠퍼스**
인하대학교 032-860-8293
- ④ **세계시민캠퍼스**
한국뉴욕주립대학교,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유타대학교 032-626-1182
- ⑤ **가족시민캠퍼스**
경인여자대학교 032-540-0204
- ⑥ **처음시민캠퍼스**
경인교육대학교 032-540-1153
- ⑦ **선배시민캠퍼스** 가천대학교 032-820-4113

시민라이프칼리지
인천시민대학



'시민라이프칼리지' 온시민캠퍼스 |

평생 배움의 참기쁨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12년, 취업, 승진 준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일생에서 꽤 오랜 시간 공부에 매달린다. 돌아보면 공부는 지겹고 시험은 괴로웠던 기억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평생 배움이 기쁘고 즐겁다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 4월 20일, '시민라이프칼리지 Citizen Life College' 온시민캠퍼스의 '해양문화아카데미'. 글로벌에코투어연구소 노형래(46) 소장이 개강 후 첫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의 말 마디마다 인천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이 묻어난다. "인천은 바다의 도시입니다.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해 많은 땅이 간척과 매립으로 도시화됐지요. 많은 섬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생태 자원을 품은 168개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의 아름다움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강의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작은 줌 화면 너머로 보이는 학생들의 눈빛이 진지하다. 이수정(53) 학생은 그럼에도 직접 눈을 맞추고 대화하고 싶어 학교로 발걸음을 했다. "참배움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시험을 치르고 대학에 가기 위한 공부만 지겹도록 했잖아요. 100세 시대, 이제 진짜 공부를 평생 해야죠." 기대만큼 눈빛이 반짝 반짝 빛난다.



| 비대면으로 해양문화아카데미를 강의하는 노형래 강사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대학생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학비 부담 없이 시민 대학생이 될 수 있다.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인천시민대학 '시민라이프칼리지'는 지역 대학이 참여하는 인천시민의 새로운 평생교육 모델이다.

지역 6개 캠퍼스 8개 대학이 우리 시 평생교육의 뜻을 함께한다. '선배시민캠퍼스' 가천대, '처음시민캠퍼스' 경인교대, '가족시민캠퍼스' 경인여대, '온시민캠퍼스' 인천대, '청년시민캠퍼스' 인하대, '세계시민캠퍼스'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외국 대학인 한국뉴욕주립대·한국조지메이슨대·유타대이다. 이들 대학은 시민 의견을 수렴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54개 교육과정을 연 150시간 이상 제공한다. 문화 예술, 창업과 전업, 미래 기술, 인문 철학, 국제 언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넘나든다. '시민라이프칼리지'를 수료하면 인천시장 명의의 '명예시민학위'를 품에 안을 수 있다. 100시간을 이수하면 명예시민학사, 학사 취득 이후 150시간을 이수하면 명예시민석사 학위, 석사 취득 이후 20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명예시민박사 학위를 수여 받는다.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 문의 032-722-7238

인천시민대학 '시민라이프칼리지' 특전

<p>수업료 무료 전 캠퍼스 강좌 무료 ※교구비, 재료비 별도</p>	<p>대학교수의 우수 강의 검증된 대학교수의 소수정예 밀착 강의</p>	<p>대학교 캠퍼스 시설 이용 도서관, 수영장 등 캠퍼스 내 시설 이용</p>
<p>명예시민학위 인정 인천과 대학교가 인정하는 학사·석사·박사학위 제공</p>	<p>인천시민대학 캠퍼스 '시민라이프칼리지'</p>	<p>웰컴키트 제공 첫 세대 시민 학습자를 위한 교구 제공 ※본부 캠퍼스 학습자에 한함</p>
<p>유명 강사 강연 및 행사 초청 대학과 지역 연계를 통한 강연 및 행사 개최</p>	<p>시민 맞춤형 교육 제공 청년, 선배 등 전 시민 대상 맞춤형 교육 제공</p>	<p>우수 학습자 표창 대학 또는 기관장 표창 및 시민 강사 기회 제공</p>

* 본 특전 중 일부는 캠퍼스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학비 부담 없이 시민 대학생이 될 수 있다.
인천시민대학 '시민라이프칼리지'는
지역 대학이 함께하는
인천시민의 평생교육 모델이다.

인천시민대학 꿈, 삶, 미래 연다

인천시 1호 시민 대학생은 18세 청년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른다. 나이도 학력도, 살아온 시간도 하는 일도 다 다르지만, 모두 배우는 즐거움 안에서 삶의 행복을 찾아간다. 언제부터인가 현실에 부딪혀, 스스로의 꿈에 한계선을 긋지는 않았는가. 그럼에도, 꿈을 내려놓지는 말자. 인생은 길다. 평생교육으로 내게 허락된 모든 가능성을 힘껏 열어젖히자. 2022년 1학기 '시민라이프칼리지'는 지난 4월 초 수강 신청이 시작되자마자 일주일 만에 조기 마감됐다. 대기하는 사람만 500여 명에 이르렀다. 그만큼 인천시민의 배움에 대한 열망과 간절함은 뜨거웠다. 인천시민대학 '시민라이프칼리지'에서 평생 배움의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 배움으로 삶의 지표를 세우며 서로에게 희망이 되는 그들은, 인천시민이다. 인천의 앞날은 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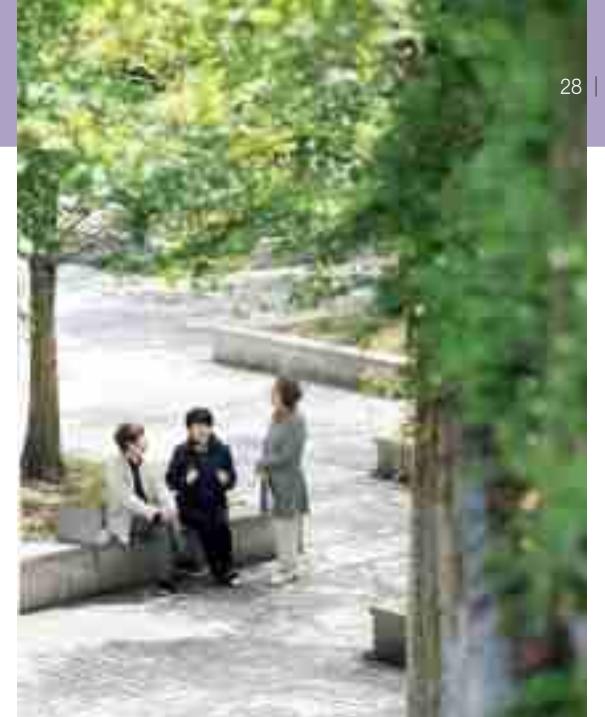
배움, 미래를 바꾸는 힘

김월용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INTERVIEW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김월용(66) 원장. 그에겐 진흥원장과 함께 IT융합학 박사이자 전 한국폴리텍 인천캠퍼스 학장, 성공한 사업가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붙는다. 평생교육이 없었다면 지금의 그는 없다. 열여덟에 강원도 탄광에 갇혀 스물여섯 살에야 벗어날 수 있었다. 그 후로 '삶을, 시간을 당연히 여기지 않는 것'을 인생 철학으로 삼았다. 단 하루, 단 한번의 기회도 허투루 버리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해 살아냈다. 56세까지 초등학교 졸업자로 살다 검정고시·독학사를 거쳐 64세에 박사가 됐다. 배움은 늘 가슴에 품은 숙제였다. 인천시민대학 '시민라이프칼리지'는 이처럼 배움이 간절한 사람들의 꿈을 실현한다. 먼저 대학의 문을 활짝 열었다. 전국 최초로 대학과 연계한 지역 종합 캠퍼스로, 누구나 학비 부담 없이 시민 대학생이 될 수 있다. "시민이 배움으로 깨어야 도시의 품격이 높아집니다. 많은 인천시민이 배움으로 삶의 행복을 찾길 바랍니다." '평생교육의 산증인'이 눈앞에 있다. '배움이 내일을 바꾸리라'는 확신이 든다.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시민 대학생이 되어 캠퍼스 생활을 누릴 수 있다. |

지속가능한 의생활 헌 옷 교환 '21% 파티'

유행에 민감하고 멋 좀 부린다는 대학생들이 파티를 열기로 했다. 멀쩡하지만 싫증 나서 입지 않는 옷을 서로 교환해 입는 '21% 파티'다. 지속 가능한 의생활 캠페인을 펼치는 '다시입다연구소'의 조사 결과 옷장 속 옷 중 21%는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이라고 한다.

글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유승현 자유사진가

“옷장을 비우면 지구가 살아요” ★★

KT&G 상상univ.

구제 옷가게에서 구입
₩10,000원

의상 장비
업사이클링 제품
₩28,000원

₩17,000원

구제 옷가게에서
구입
₩25,000원

교통카드와 같은
현관으로 제작한 가방
₩24,000원

KT&G 상상유니브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운영진 '상상프렌즈 인천' 학생들

새 옷 대신 '추억 담긴 옷' 발견하는 재미

파티의 규칙은 간단하다. 싫증 난 옷을 깨끗이 세탁해 챙긴다. 파티장 입구에서 '굿바이 헬로우 태그'를 받아 옷에 담긴 사연을 적은 뒤 쿠폰을 받는다. 쿠폰으로 다른 참가자들이 준비한 옷과 추억을 가질 수 있다. 리폼 체험, 환경 퀴즈 쇼 등 즐길 거리도 다양하다.

기획부터 운영까지 KT&G 상상유니브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운영진 '상상프렌즈 인천' 학생들이 진행한다. 코디 역할을 맡은 황윤석(22) 학생은 “세상에 안 예쁜 옷은 없다”며 “유행을 따르기보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는 게 ‘진짜 멋’”이라고 강조했다. 권량현(24) 학생은 “중고 옷의 가치를 발견하고 추억을 공유하는 파티”라며 “너도나도 따라 입는 ‘신상’이 아닌 누군가의 추억이 담긴 ‘나만의 신상’을 발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옷 과잉 생산·소비'의 시대

“생산부터 소비, 섬유 폐기물 처리까지 패션산업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란 걸 깨닫고 충격을 받았어요. 제3세계로 수출된 헌 옷이 쓰레기 산을 이룰 정도로 전 세계에 옷이 넘쳐나고 있어요.” 김재현(26) 학생은 쉽게 사고 버리는 옷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안 입는 옷’의 문제는 단순한 낭비에 그치지 않는다. 티셔츠 한 장을 만드는 데까지 2.1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2,700ℓ의 물이 사용된다. 유행이 빨리 변하며 세계에서 매년 생산되는 옷은 1,500억 벌에 달한다. 그런데 이 중 73%는 소각·매립되고 만다. 의류산업이 석유산업에 이어 ‘최대 오염 산업’인 이유다.



©다시입다연구소

운영 일시 2022년 5월 21일(토) 오후 1~4시

행사 장소 KT&G 상상유니브 아틀리에

참여 기관 다시입다연구소, 인하대학교 지구언박싱

프로그램

행사명	참여 방식
친환경 챌린지	병뚜껑(작은 플라스틱) 모으기 챌린지
원데이 클래스	밀랍 랩, 커피 방향제 등 만들기
21% 파티	코디 체험
	의상 리폼
	패션 스타
환경 주제 퀴즈 쇼	환경 관련 퀴즈 쇼 참여
팝업 스토어	친환경 물품 전시 및 판매, 수익금 전액 기부

친환경 챌린지

‘지구언박싱’ 부스에 병뚜껑 등 모아온 플라스틱 제출(최소 15개)

▶ 옷의 선순환, 함께하는 사람들

헌 옷 기부로 지구 살리기

헌 옷을 기부하는 것만으로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 기부처로는 밀알복지재단의 ‘굿월스토어’, 사회적기업 ‘아름다운가게’ 등이 있다.

- ① 굿월스토어 인천남동점 032-469-9191
- ① 굿월스토어 부평점 032-511-9293
- ① 아름다운가게 1577-1113

현금 받고 옷 정리하기

온라인 카페를 통해 이름이 알려진 ‘헌옷 총각’은 집으로 찾아와 옷을 수거해 가는 헌 옷 전문 수거업체다. 옷 무게를 잰 뒤 바로 현금을 내준다.

- ① 네이버 카페 헌옷총각 010-8828-9952

정장·면접 의상 빌려 입기

자주 입지 않는 정장의 경우 대여점을 이용하면 좋은 옷을 저렴하게 빌릴 수 있다. 우리 시의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사업을 통해 무료 이용도 가능하다.

- ① 살로토 인천점 0507-1441-111
- ① 클래식 테일러샵 032-361-2588



교동향교

우리나라 최초의 향교

글·사진 김진국 본지 편집장

‘향교’는 공자(孔子) 같은 성현의 위패를 모시고 학생들을 가르치던 고려, 조선 시대 국립학교다. 우리나라에 처음 향교가 들어선 시기는 1127년(인종5)이다. 강화군 교동면의 ‘교동향교’(인천시 유형문화재 28호)가 그것이다. 중국에서 바닷길로 올 때 처음 거쳐야 하는 곳이 교동도였으므로 자연스럽게 최초의 향교가 설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교동향교엔 교동도를 다스린 ‘수군절도사 겸 부사’의 선정비 39기와 서재·동재, 서무·동무, 명륜전, 대성전이 자리한다. 성인들께 제사를 올리는 대성전엔 5성(五聖), 송조2현(宋朝二賢), 우리나라 18현(十八賢)의 위패가 봉안돼 있다. 가장 큰 대성은 공자이고, 4성은 4대 제자인 안자·증자·자사·맹자를 가리킨다.

고려 시대 과거제를 실시하고 학교 제도를 정비하던 향교는 조선 시대 들어 유교 이념의 보급과 중앙집권체제 강화에 앞장선다. 향교가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된 시기도 이때다.

설립 당시 화개산 북쪽 구리 향교골에 있던 교동향교는 1741년(영조17) 교동읍이 읍내리로 이전하며 지금의 자리로 옮겨왔다

진달래 피는 봄과 감이 열리는 가을에 석전을 봉행하며 초하루와 보름에 분향을 올린다. 전교 1인과 장의 여러 명이 운영하고 있다.

문화 zoom

그리운 그 이름..., 죽산 조봉암을 만나다

글·사진 김진국 본지 편집장

인천이 낳은 지도자 죽산 조봉암(1899~1959) 사진전이 5월 15일까지 인천시립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그리움... 인천이 낳은 지도자, 조봉암’이란 제목의 이번 사진전에선 195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조봉암 선생이 유세하던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한국전쟁 중군 기자이던 마거릿 버크화이트가 촬영한 이 희귀 사진들에선 죽산의 강직하고 당당한 풍모가 잘 드러난다. 1958년 진보당 사건 당시 서울특별시경찰국의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죽산의 자필 자공서도 공개한다.

강화도 선원면 빈농의 아들로 태어난 죽산은 좌·우익 사상을 뛰어넘은 민족지도자였다. 농림부 장관 시절엔 토지개혁을 단행해 농민들에게 살아갈 희망을 안겨주었고, 공산·자본주의를 초월한 평화통일을 주창했다.

국민의 지지를 얻어 두 차례 출마한 대통령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자 자유당 정권은 죽산에게 간첩죄를 씌워 사형을 집행한다. 죽산은 사형 집행 전 자신을 찾아온 청국 윤길중(1916~2001)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

“어느 땐가 평화통일을 할 날이 올 것이고, 바라고 바라던 밝은 정치와 온 국민이 고무 잘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인데, 씨를 뿌린 자가 열매를 거둔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나는 씨를 뿌려놓고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네.” 죽산이 뿌린 씨는 63년이 흐른 2022년 지금, 빛나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중이다.



‘그리움... 인천이 낳은 지도자, 조봉암’ 사진전 전시

꿈을 키우고 희망을 채우는 행복한 학교

세상 모든 학교는 귀하다. 그 속에서도 특별한 전통과 저력을 품은 곳이 있다. 학교를 통해 도시를 들여다보는 ‘인천의 학교를 찾아서’. 그 스물네 번째 등곳 길을 따라 중구 신흥동으로 발길을 옮긴다. 오후 2시, 하교하는 아이들로 분주한 가운데 운동장에서 담소를 나누는 아이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전교 학생회장인 6학년 이혜린(12) 양과 수영부 선수인 6학년 윤효정(12) 양, 4학년 김도현(10) 군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마침 하교 지도를 하던 박지수 교사(30)까지 합류해 이야기는 점점 무르익어갔다.

글 김지은 자유기고가 | 사진 김범기 자유사진가

6학년 윤효정·이혜린 양,
박지수 교사, 4학년 김도현 군
(왼쪽부터)



인천신광초등학교는 1958년 개교해 올해 64주년을 맞이했다.

30여 년 전통에 빛나는 수영부

최근 인천신광초등학교(이하 신광초) 수영부에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인천광역시 대표 선수 예선대회에서 윤효정 양이 평영 100m 부문 은메달을 수상한 것. 그동안 코로나19로 대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한 상황에서 오랜만에 들려온 쾌거라 더욱 반가웠다. “열심히 훈련한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달 후에 열릴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훈련하겠습니다.” 윤효정 양은 담담하게 소감을 밝히며 웃음 지었다. 효정 양이 처음 수영을 시작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다. 당시 살이 갑자기 썩어 어떤 운동을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에 수영부가 있다기에 지원했다. 그전까지 한 번도 수영을 배운 적 없었지만 빠르게 적응해 갔고, 배울수록 수영이 좋아지더라.

“일곱 살 때부터 수영을 했어요. 신광초에 입학해 수영부가 있다는 걸 알고 바로 지원했구요. 수영을 매일 하니 지겹지 않냐고 하는데요, 저는 매번 배우는 게 있어서 좋아요.

자세도 조금씩 좋아지고 기록도 나아지니까 재미있어요.” 김도현 군에게 수영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다. 1학년 2학기 때부터 대한수영연맹에 정식 선수로 등록하고 활동하는 중이다. 접영과 자유형이 주종목이고 인천광역시교육감배 초등학생 수영대회 접영 50m에서 2등을 차지하기도 했다.

신광초 수영부는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30여 년 전부터 운영되어 왔고, 지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평영 200m에서 15세의 나이로 준결승에 오른 구효진(37) 선수를 비롯해 여러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인천은 물론 전국 단위 대회에서 여러 차례 개인과 단체 부문 우승을 차지했다. 6학년 담임이자 수영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지수 교사는 학생들의 성실하고도 꾸준한 훈련을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이유로 꼽았다.

“수영부 선수들은 매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훈련을 해요. 1시간은 체력 훈련, 2시간은 수영 훈련을 하지요. 토요일에도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훈련을 해요.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분명 힘들 텐데 묵묵히 전력을 다해요. 수영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진심이구나 느껴진답니다.”

무궁화 잎을 모티브로 한 신광초의 교표



학생들의 예술 체험 활동 현장

재미있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

신광초는 교과 활동 외에도 문화, 예술, 체육 등 다방면으로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경험과 기회를 제공한다.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역시 이런 교육 철학의 연장선에서 역점을 기울이는 분야다. 방과후수업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데 오케스트라는 악기도 빠짐없이 갖추고 있다. 바이올린, 첼로는 기본이고 드럼까지 연주가 가능해 클래식부터 퓨전까지 소화 가능한 레퍼토리가 많다. 교내 음악회도 연 3~4회 진행할 만큼 단원들도 학생들도 반응이 뜨겁다.

“재미있는 배움과 즐거운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규수업으로 1학년과 2학년은 난타 공연을 준비하고,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우쿨렐레를 연주해요. 연 2~3회 찾아오는 클래식 음악회도 마련하고요. 학생들이 가진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가능성을 제대로 발견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4학년 담임이자 교무부장을 맡고 있는 신동준(44) 교사는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올해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동아시아 시민학교’로 선정된 것도 이 같은 교사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학생들이 동아시아에 대해 폭 넓게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 언어 등을 하나하나 같이 배워나갈 예정이다.



2021년 전국수영대회



하교 후 운동장에서 삼삼오오 모여 놀이를 즐기는 신광초 학생들

“학교에 오면 그냥 좋아요. 분명 공부하는 거지만 막 심하지 않아요. 노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리고 도서관에 책이 많아서 졸업하기 전까지 부지런히 읽어보려고요.” 이해린 양은 등교하는 발걸음이 가볍다. 올해 전교 학생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걱정도 앞서지만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좋은 학교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는 일이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정진화(58) 교장 역시 올해 새로운 변화를 맞았다. 교장으로 진급해 신광초에 첫 부임했기 때문이다.

“사실 저는 신광초와 인연이 깊어요. 1970년 신광초에 1학년으로 입학했지요. 4학년 때 전학을 가서 동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학창 시절 첫 학교이니만큼 첫 정이 깊은 곳이에요. 달리이며 맨드라미, 채송화가 가득 핀 교정에서 공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죠. 세월이 많이

변했지만 아이들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씩씩하고 귀여워요.”

정진화 교장은 학생으로 처음 만난 교정을 다시 찾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신광초가 위치한 지역은 구도심으로 신도시 학교에 비하면 노후한 시설 등 아쉬운 점이 많다. 그렇지만 밝고 맑은 학생들과 열정적인 교사들 덕분에 힘이 솟는다고.

신광초는 1958년 개교해 올해로 64년을 맞았다. 지역사회의 교육 중심으로 자리하며 오래도록 한자리를 지켜왔다. 첨단 시설은 아니지만 우수한 학생과 교사라는 최고의 인적 자원이 있기에 신광초는 오늘도 활력이 넘친다. 수영 잘하는 아이, 책 읽기 좋아하는 아이, 식물을 사랑하는 아이 등 다양각색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희망을 채우며 신광초는 행복한 학교로 쑥쑥 자라는 중이다.

신광초가 낳은 인물



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 김은경
(31회 졸업생)

신광초 2학년 때 수영을 시작해 1년 만에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이후 국가대표 최연소 상비군으로 활동했다. 개인 혼영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선수 생활 동안 270여 개에 이르는 메달을 목에 걸었고 인천시청 소속 선수와 남부교육청 코치 등을 역임했다. 현재 영종도에서 ‘수영하는 사람들 SDG’를 운영 중이다.



배우 소지섭
(32회 졸업생)

1995년 청바지 브랜드 스톰(STORM) 모델 선발대회 1등으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데뷔 이전에는 수영 겸 수구 선수로 활약했다. 주종목은 평영으로 전국 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발탁되어 수영과 수구를 겸했다. 1998년 MBC 시트콤 ‘남자 셋 여자 셋’에 출연한 이후 KBS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로 큰 인기를 모았다. 2000년 SBS 예능 ‘뷰티풀 라이프-대한해협 횡단 프로젝트’에 참여해 뛰어난 수영 실력을 뽐낸 바 있다.

수십 년간 인천시청 지켜온 청사지킴이, 김석우 방호장

글 김진국 본지 편집장 | 사진 김성환 포토 저널리스트



“야, 넌 뭐야! 시장 나오라고 해!”

고요한 아침, 갑자기 터져 나온 고함이 인천시청사에 찌렁찌렁 퍼져 나간다. 민원인은 안하무인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시장실로 가겠다고 생떼를 부린다. 그 앞을 가로막은 정장 차림의 잘생긴 남자. 그는 때로는 근엄한 표정으로, 때로는 부드러운 미소로 민원인을 쥐락펴락한다. 몇 분이나 지났을까. 한동안 옥신각신한 끝에 불기둥처럼 타고르던 민원인의 기세가 군불처럼 사그라진다.

“민원인이 오면 우리 가족이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어머니, 형, 동생처럼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엔 큰소리를 치던 분들도 이내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지요.”

김석우(60) 인천시청 방호장은 민원인의 그림자다. 인천 시청사 곳곳 어디든 시끌시끌한 곳이면 어디선가 ‘짹’ 하고 나타나 ‘맥가이버’처럼 문제를 해결한 뒤 ‘터미네이터’처럼 사라진다. 지난 한 해 집회, 항의 방문, 1인 시위 등 시청을 찾은 민원만 1,866건인 것을 보면 그는 ‘아이언 맨’임에 틀림없다. 시청사 민원 안내부터 방호총괄, 시견 장치 점검 업무를 해온 그가 오는 6월 공무원 생활을 마감한다.

“20대이던 1987년 방호9급으로 시작한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정년퇴직할 때가 왔네요. 하하.”

36년간 방호 직렬로 근무하면서 먹살을 잡히는 일은 다 반사였고 급하게 내리는 방호 셔터에 몸이 끼이기 일쑤였다. 뜬금없이 고발장이 날아오기도 했다. 이쯤 되면 민원인들이 야속할 법도 한데, 그는 되레 안타깝다고 말한다.

“얼토당토않은 내용을 들고 찾아와 우격다짐으로 해결하려는 민원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청을 찾는 많은 분은 여러 곳을 전전하다 마지막 희망을 갖고 발걸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방호장은 오전 6시면 벌써 시청에 도착해 일과를 시작한다. 청소원들에게는 잔소리하는 시어머니가 되고, 시장이 출퇴근할 때는 듬직한 경호원으로 변신하는 그의 손엔 언제나 무전기가 들려 있다. 청경을 이끄는 경호대장과의 긴밀한 ‘핫라인’이다. 그렇게 온종일 그는 쉬지 않고 청사 안을 걸어 다닌다. 하루 걸음 수만 2만 보에 이를 정도라니.

“이젠 조금 쉬고 싶어요.” 시위 등으로 수십 년간 주말에 출근하기 일쑤이고 친인척, 친구 모임 등에도 나가지 못한 그는 퇴직한 뒤 부인 박미경(60) 씨와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했다.

“칙… 칙…! 방호장님, 나오세요. 동문에서 민원 발생했습니다!”

인터뷰 도중 무전기가 울렸다.

“앗, 금세 갈 테니 민원인 잘 달라고 주세요!”

무전을 받자마자 벌떡 일어나 쿵쿵 달려가는 그의 발자국에 정년을 맞는 시원섭섭함과 그동안 잘 살아왔다는 자부심, 그리고 인천시민과 동료들에 대한 감사함이 짙혀 있었다.

인천시청 방호와 동료들(사진 위), 청경들과 함께한 김석우 방호장





제2의
인생을 만들어준다니,
함께 기쁩시다.

④ 우리가 마주한 밤

글 안보윤

영석은 골똘히 생각 중이었다. 출근 버스에서 내려 회사를 향해 걷는 동안 생각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했다. 대체 뭘까. 뭘가 이렇게 마음 한편을 짓누르는 걸까.

딱히 눈에 띄는 문제는 없었다. 영석은 남동공단 내 위치한 가구 회사에서 17년간 근속해 왔다. 차장 직급으로 승진하기까지 동료들과 적당한 선에서 어울렸고, 복잡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 서로의 경조사에 정해진 만큼만 돈을 부치는 관계였지만 직장 사람들과 무림없이 친한 것도 이상한 일이었다. 어느 정도의 거리감은 당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영석은 자꾸만 골똘해지게 되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전력 질주를 하다 멈추면 돌연 한기가 도는 것처럼 영석은 자주 위화감을 느꼈다. 이상하네. 영석은 혼잣말을 하며 사무실로 들어섰다.

“차장님, 몸은 좀 괜찮으세요?”

후배가 영석을 보자마자 물었다. 영석은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도 얼굴이 핏색해 보이는데, 정말 괜찮아? 탕비실 문을 열고 나오던 동기가 말을 엿었다. 오늘 내 얼굴이 많이 안 좋은가 의심하면서도 영석은 대답했다. 괜찮아, 난 항상 괜찮지. 그러나 지나가던 임과장이 하루 더 쉬지 그랬어,라고 말했을 때에는 이게 다 무슨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자네 어제 아프다고 조퇴했잖나.”

“제가요?”

어제 점심시간 직후 파랗게 질린 얼굴로 조퇴한 사람은 박성일 차장이었다. 똑같이 박 차장이라 불리지만 엄연히 다른 사람이었다. 터무니없는 착각을 따져 물을 새

도 없이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잠시 후 문을 열고 박 차장, 그러니까 어제 조퇴를 해 모두의 걱정을 산 장본인이 들어섰다. 여전히 낮빛이 좋지 못했다. 정말 괜찮으신 거 맞아요? 후배가 박 차장에게 다시 물었다. 계속 몸이 안 좋으면 얘기하게. 임 과장이 멀쩡이 떨어진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영석은 괜찮습니다, 난 이제 괜찮네,라고 답하고 있는 박 차장을 바라보았다. 흐린 이목구비에 잿빛 얼굴, 어디서나 살 수 있을 법한 와이셔츠와 군청색 넥타이가 조금도 낮설지 않았다. 안쪽으로 말린 좁은 어깨 때문에 옆모습이 구부정해 보였다. 그것은 실로 익숙한 모습이였다. 영석은 탕비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전신 거울에 자신을 비춰 보았다. 거울 속에는 흐릿하고 구부정한 중년 남자가 잿빛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있었다. 박 차장, 자네 괜찮나? 영석은 저도 모르게 거울 속 사람에게 물었다.

영석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일을 시작했다. 누군가 말을 건네면 대답하고 데이터를 원하면 보내줬다. 잠시 골똘해졌다가 고개를 드니 사무실이 텅 비어 있었다. 당황한 영석의 눈에 정오를 조금 지난 시계가 보였다. 누군가 영석에게도 점심을 권했을 테지만 대답까지는 필요치 않았던 모양이었다. 줄곧 느껴왔던 위화감의 정체를 알 것 같았다. 영석은 17년간 한자리에 있었으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꼭 영석일 필요는 없었다. 누구든 대신할 수 있는 사람, 군청색 넥타이만큼이나 존재감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영석이었다.



일러스트 송미정

퇴근길에 영석은 사거리 편의점 앞에서 딸과 마주쳤다. 영석의 딸 민서는 커다란 목소리로 아빠! 하고 불렀다. 틀림없이 영석을 부르는 목소리였다. 영석은 안쪽으로 굽어 있던 어깨가 조금 펴지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가 든 비닐봉지를 끌어안은 민서가 영석을 향해 달려왔다. 아빠, 잠깐만. 영석 옆에 서기 무섭게 민서는 반대편 골목을 살폈다. 목을 길게 빼고 이쪽저쪽을 꼼꼼히 살핀 뒤에야 이제 가도 돼,라고 말했다.

“누구 만나기로 했어?”

“만나기로 한 건 아닌데, 가끔 유영이가 굉장한 속도로 저기서 달려 나오거든.”

민서가 낮은 담이 늘어선 주택가 안쪽을 가리켰다. 유영은 민서의 오랜 친구였다. 피겨스케이트를 한다던 유영의 오빠가 졸졸이를 입고 온 집 안을 뛰어다녔다는 얘기를 언젠가 들은 것도 같았다. 영석이 기억을 더듬는 동안 민서가 조잘댔다.

“예전에 아빠가 그랬잖아. 친구가 힘들어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캐묻지 말고 그냥 칭찬해 주라고. 너 멋있다, 너는 이런 점이 참 근사해. 그렇게 진심으로 칭찬해 주면 기운을 낼 거라고 말이야. 아빠 말이 맞았어. 유영이가 힘들어하는 게 뭘진 잘 모르겠지만, 내가 칭찬해 주면 유영이가 기뻐해. 즐거워하는 게 눈에 보여. 그래서 여기서 가끔 기다리는 거야. 유영이 칭찬해 주려고.”

민서와 나란히 걷고 있던 영석이 걸음을 멈췄다. 영석의 기억이 맞다면 그건 민서가 초등학교생일 때 해줬던 얘기였다. 아빠가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해? 영석이 묻자 민서가 냉큼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아빠가 해준 말은 전부 다 여기 들어 있어.” 민서가 가슴께를 팡팡 두드렸다. 영석의 마음속에 희미한 아지랑이 같은 것이 피어올랐다. 가볍고 따뜻하고 가만히 흔들리는 작은 숨 같은 것이었다. 영석의 어깨가 조금 더 반듯하게 펴졌다. 회사에 있는 동안 영석은 아득한 물 위를 홀로 떠도는 기분이었다. 어느 곳에도 머물지 못한 채 무력하고 공허한 시간 속을 맴돌았다. 주위엔 영석처럼 뼈대가 드러난 낡은 배들만이 가득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었다. 영석에게는 민서라는 빛나는 노가 쥐여 있었다.

여기 있었구나. 영석이 말했다.

내가 바로 여기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어.

영석이 손을 뻗어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서가 의아한 얼굴로 영석을 올려다보았다. 영석의 눈과 입매가 조금씩 등글어졌다.

“그런데 편의점에는 왜? 필요한 거 있음 아빠한테 얘기하지 그랬어. 아빠가 다 사다 줘를 텐데.”

“아니야, 그럼 안 돼!”

민서가 돌연 큰 소리를 냈다. 게걸음으로 조금씩 영석에게서 비켜선다 싶더니 품에 안고 있던 비닐봉지를 뒤로 숨겼다. 아빠가 보면 안 되는 거야?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 영석은 짐짓 모르는 척 앞장서 걷기 시작했다. 등글어진 입매에서 자꾸만 웃음이 새어 나왔다. 민서 뒤에 숨은 비닐봉지가 바스락바스락 작은 소리를 냈다. 벌어진 틈으로 이파리 하나가 비집고 나오더니 꽃대 하나가 불쑥 솟았다. 겹겹이 포개진 꽃잎들이 민서의 걸음에 맞춰 살랑거렸다. 내일이면 영석의 책상 위에 놓여 빛을 머금게 될 작은 카네이션 화분이었다.



안보윤 | 1981년 인천 출신. 2005년 장편소설 <악어떼가 나왔다>로 문학동네작가상을 받으며 등단. 자음과모음문학상 수상. 소설집 <비교적 안녕한 당신의 하루> <소년7의 고백>, 장편소설 <오즈의 닥터> <사소한 문제들> <우선멈춤> <모르는 척> <밤의 행방>, 중편소설 <알마의 숲>이 있다.

반세기 세월을 반추하며

지은이 김흥기 | 펴낸 곳 개미
168쪽, 1만 원

김흥기 한국사보협회 회장이 ‘첫눈 같은 첫 시집’을 발간했다. <첫눈이 내게 왔을 때>는 도시의 여러 면모와 풍광, 편린들을 스케치처럼 담은 시집이다.

시인은 책에서 자신이 밭 딛고 사는 삶의 터전으로서 도시의 속살을 내밀하게 그려낸다. 가족에 대한 단상과 유년 시절의 추억도 봄꽃처럼 울긋불긋 피어난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민주화의 물결이 출렁이던 시대. 그 강물을 건너온 시인은 그 시절 삶의 주변을 세심하고 관조적으로 돌아보고 있기도 하다.

경북 경산에서 태어난 김흥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시를 쓰기 시작한 이래 반세기 만에 첫 시집을 펴냈다. 전지연, 신철, 이미애 3인의 화가는 발간을 축하하며 1~3쇄 표지화를 그려 주었다. 소설가 오은주는 “김흥기는 길게 흐르는 강물 같은 사람이며 그의 시는 숨겨놓은 오래된 사랑”이라고 말했다.

깊은 상처와 긴 회복에 관한 이야기

지은이 김중미 | 펴낸 곳 낮은산
288쪽, 1만 3,000원

‘낮은산 청소년문학 키큰나무’ 시리즈 24권. <너를 위한 증언>은 쉽게 말할 수 없고, 제대로 들어본 적 없던 깊은 상처와 긴 회복에 대한 이야기다.

<괘이부리말 아이들>을 시작으로 <그날, 고양이가 내게로 왔다>, <곁에 있다는 것> 등의 작품을 통해 가난한 아이들과 이웃의 삶을 전해온 김중미 작가가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다가 꺼내놓은, 죽기보다 살기를 바랐던 여자들의 이야기다. 이 소설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새겨진 폭력의 기억이 어떻게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지를 보여준다. 그 폭력의 트라우마가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에게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있게 파고든다. 여자들은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고통과 싸우는 동시에 딸들과 동생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 증언을 시작한다.



5 Culture Calendar

이달의 전시

이기원(murim) 장르의 확장
인천교육청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5월 3~12일
☎ 032-899-1516

임휴 개인전 <응시(凝視)>
인천교육청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5월 3~12일
☎ 032-899-1516

**화교들의 항일운동
- 1943년 인천, 일동회**
인천시립박물관 1층
갤러리 한나루
5월 15일까지
☎ 032-440-6759



그리움... 인천이 낳은 지도자, 조봉암
인천시립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5월 15일까지
☎ 032-440-6759

강희산 개인전 <학해무변(學海無邊)>
인천교육청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5월 18~26일
☎ 032-899-1516

민담회 그룹전 <하하 호호>
인천교육청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5월 18~26일
☎ 032-899-1516

위신재, 권위와 신분의 상징
검단선사박물관
2층 특별전시실
5월 29일까지
☎ 032-440-6790

<아기곰 ABC> 그림책 원화 전시
청라국제도서관
5월 31일까지
☎ 032-562-6826

<테디를 찾습니다> 원화 아트 프린트
청라호수도서관
5월 31일까지
☎ 032-563-8044







이달의 공연·박람회

05 목

핑크퐁 클래식 나라 <뚜띠를 찾아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5월 5일
오후 2시
R석 3만 원, S석 2만 원
☎ 1588-2341

키즈 콘서트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 I
아트센터인천 다목적홀
5월 5일
오후 3시
전 석 1만 5,000원
☎ 032-453-7700



연희 <어린이날 콘서트>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5월 5일 오후 4시 30분
성인 3만 원 어린이·청소년 1만 5,000원
☎ 032-289-4275

인어공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5월 5일, 7~8일 오전 11시, 오후 2시·4시
5월 6일 오전 11시, 오후 2시·7시
전 석 2만 원
☎ 02-747-9988

07 토

한국 근대 동요 열전
학산소극장
5월 7일 오후 3시
전 석 무료
☎ 070-8065-5732



12 목

어린이 클래식 음악극 <모차르트의 마법 바이올린>
인천교육청평생학습관 미추홀
5월 12일 오후 7시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 032-899-1517

지혜를 배우는 시간 <대담한 대답: 시선의 확장> II
아트센터인천 다목적홀
5월 12일 오후 3시
전 석 2만 원
☎ 032-453-7700



이달의 공연·박람회

13 금

재즈 시리즈 <옥탑 재즈> I
Octave Jazz > I
아트센터인천 다목적홀
5월 13일 오후 7시 30분
전 석 2만 원
☎ 032-453-7700

인천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워터캐슬 - 토끼탈출기>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5월 13일 오후 8시
5월 14일 오후 4시
R석 3만 원, S석 2만 원, A석 1만 원
☎ 1588-2341

14 토

작곡가 시리즈 <프로코피예프> II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5월 14일 오후 5시
R석 5만 원, S석 4만 원, A석 3만 원
☎ 032-453-7700

16 월

김이령 파이프오르간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5월 16일 오후 7시 30분
전 석 2만 원
☎ 032-289-4275

18 수

2022 커피콘서트 III 김경아 명창 <춘향가 - 봄, 향기, 소리>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5월 18일 오후 2시
전 석 1만 2,000원
☎ 032-420-2736

김경민·박인혜 듀오 콘서트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5월 18일 오후 7시 30분
전 석 1만 원
☎ 032-289-4275



20 금

어린이극 '어딘가, 반짝'
학산소극장
5월 20일 오전 10시
5월 21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전 석 2만 원
☎ 032-866-3993

인천시립교향악단 제402회 정기연주회 <비바 오페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5월 20일 오후 7시 30분
R석 1만 원, S석 7,000원
☎ 1588-2341

21 토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5월 21일 오후 5시
R석 12만 원, S석 9만 원, A석 6만 원, B석 4만 원
☎ 070-4190-1289

22 일

Spring Baroque 2022: 비바 헨델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5월 22일 오후 5시
R석 7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
☎ 010-7313-8925

백한울 피아노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5월 22일 오후 4시 30분
전 석 1만 원
☎ 032-289-4275

25 수

마티네 콘서트 <김정원의 낭만가도 '인연'> II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5월 25일 오전 11시
전 석 2만 5,000원
☎ 032-453-7700

가족음악회 '암행어사 출도야!'
학산소극장
5월 25일 오후 7시
전 석 무료
☎ 032-866-3993



문성우 피아노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5월 25일 오후 7시 30분
전 석 1만 원
☎ 032-289-4275

26 목

재즈와 함께하는 영미문학산책
인천교육청평생학습관 미추홀
5월 26일 오후 7시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 032-899-1517

28 토

청소년 음악회 <실함실 콘서트> I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5월 28일 오후 3시
전 석 1만 원
☎ 032-453-7700

그림책 미디어 연극 <파란 나무>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5월 28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전 석 2만 원
☎ 1588-2341

뮤지컬 캐치! 티니핑 <프린세스 다이어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5월 28~29일 오전 11시, 오후 2시·4시 30분
R석 6만 6,000원, S석 5만 5,000원
☎ 02-333-9009

29 일

2022 빈 심포니 대한공연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5월 29일 오후 7시 30분
R석 28만 원, S석 21만 원, A석 14만 원, B석 7만 원
☎ 02-2183-1290

윤지훈 아쟁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5월 29일 오후 4시 30분
전 석 1만 원
☎ 032-289-4275



버리는 장난감 블록 ‘e음 포인트’로 바꿔드려요

우리 시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수거했어 내 블록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쓰임을 다한 장난감 블록을 수거해 예술 작품인 ‘브릭 아트’로 새롭게 변신시키는 것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모색하고자 한다. 장난감 블록은 플라스틱 중에서도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가 되지 않아 자칫 매물단지로 전락하기 쉽다. 그런데 재

활용품 수집을 위해 운영 중인 ‘인천 e-음 가게’에 분리배출하면 인천 지역화폐인 인천e음카드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장난감 블록 1kg당 100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분리배출된 장난감 블록은 세계적인 브릭 아티스트 진케이의 손을 거쳐 인천시를 상징하는 브릭 아트 예술품으로 다시 태어날 예정이다. 페블록 수거 기간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며, 브릭 아트 예술품은 오는 10월 전시할 계획이다.

인천시 최초 노인 놀이터 개소 7곳 시범 운영

우리 시 최초 어르신 놀이터인 ‘상상 시니어파크’가 개소했다. 간석동 노인종합문화회관 광장 내 120m² 면적에 노년층을 위한 종합 순환 운동기구 12종을 갖추고 있다. 노령층의 근육과 유연성을 강화하는 운동기구를 주로 배치했다. 우리 시는 이곳을 포함한 7곳(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 월미공원, 인천대공원, 송도노인복지관, 인천시립요양원, 부평구, 계양구)을 시범 운영 후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 노인정책과 032-440-2812

‘제2기 환경특별시민’을 찾습니다 연중 공개 모집

우리 시와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올해에도 지역사회에서 친환경 활동을 열렬히 펼치는 ‘환경특별시민’을 찾는다. 제2기 환경특별시민은 녹색 생활, 자원순환, 대기, 수질, 해양 등 환경에 관한 모든 분야에서 환경 보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인천지속협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iccen@kcen.kr)로 제출하면 된다. 시 환경특별시추진단 032-458-7124

인천 앞바다 파노라마를 한눈에 소래 해넘이 전망대 개방

소래포구 해안산책로에 해넘이 전망대가 조성됐다. 소래포구와 해오름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바다와 낙조를 감상할 수 있게 됐다. 해양 친수 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해넘이 전망대는 소래포구의 어선을 상징한다. LED 조명이 설치돼 밤에도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고 CCTV를 설치해 방문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했다. 우리 시는 해안 철책 철거와 기존 친수시설 연계를 통해 확장된 해양 친수 공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시 해양친수와 032-458-7157

인천 문화의 자긍심 애관극장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우리 시는 지난 4월 18일 인천영상위원회, 시민단체, 애관극장과 함께 ‘애관극장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895년 개관한 인천 애관극장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연장으로 인기를 모았으나 멀티플렉스 상영관이 등장하면서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4개 기관(단체) 간 상호 협력 방안과 함께 소중한 문화유산인 애관극장을 영상문화 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의지를 담았다. 시 문화콘텐츠과 032-440-3992

2023년 세계큐브협회 월드챔피언십 내년 8월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려

우리 시가 인천관광공사와 협력해 2023년 세계큐브협회 월드챔피언십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이 대회는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큐브협회의 최대 규모 행사로 1982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처음 개최된 후 전 세계 도시를 순회하며 열리고 있으며, 직전 대회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렸다. 2023년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전 세계 50개국에서 2,500여 명이 참가한다. 시 마이스산업과 032-440-1513

인천 검단에서 서울·일산·부천 가는 길 개선 검단-경명로 도로공사 착공

인천 검단의 신도시와 서울, 일산, 부천 등을 잇는 도로망이 형성되면서 교통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우리 시는 지난 4월 14일, 서구 원당동에서 검단-경명로 도로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검단-경명로 도로공사는 검단신도시 남측과 인천공항고속도로, 경명대로를 연결하는 공사다. 총연장 4.09km의 왕복 4차로로 총사업비 2,990억 원을 투입하며, 2026년 3월 준공 예정이다. 시 도시개발과 032-440-3322



COUNCIL NEWS

제279회 원포인트 임시회 열어



인천시의회가 지난 4월 22일 제279회 임시회를 열었다. 원포인트로 열린 이날 임시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군·구의 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처리됐다. 한편, 시의회 다음 임시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열린다. 제280회 임시회에서는 새롭게 선출된 제9대 시의회 원구성과 개원식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청소년 의정아카데미, 2년 만에 대면 운영 재개



비대면으로 운영되던 ‘인천시의회 청소년 의정아카데미’가 2년 만에 대면 운영을 재개했다. 시의회는 2022년 한 해 24개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정교실과 본회의 체험교실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여 학생들은 시의원, 시장, 교육감 등 저마다 역할을 맡아 발언 및 토론을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체험하게 된다.

인천시의회, ‘비전·전략 추진 TF’ 출범



인천시의회가 ‘자치분권 2.0’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이뤄진 비전·전략 추진 전담팀(TF)을 구성했다. 오는 6월까지 운영되는 비전·전략 추진 TF는 지방의회 현황 진단과 대내외 여건 분석을 수행하며 시의회의 중장기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인천시의회가 지난 4월 6일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10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은 인천시 일반회계 등 총 2조 7,964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한다. 또한 그 결과를 인천시장과 인천시교육감에게 제출해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만화로 보는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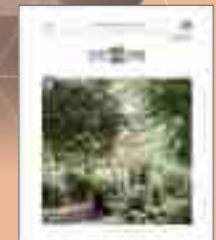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용 주차구역, 충전시설 설치 수량 등을 규정합니다. 인천시가 저탄소 녹색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all ways
INCHEON

〈인천앓의회〉 구독 안내



인천광역시의회 더 자세한 의정활동 소식은 〈인천앓의회〉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한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인천앓의회〉에는 의회, 관광, 인천 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문의 032-440-6135(의회사무처)

랜선으로 보는 〈인천앓의회〉



〈인천앓의회〉를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랜선으로 보는 인천앓의회’ 요요미와의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천앓의회〉 웹진 구독 안내



인천의 자연, 시민의 색으로 물들다

‘환경특별시’ 인천은 168개 섬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습니다.
삶에 심판을 찍는 여유와 다채로운 매력이 살아 숨 쉬는 인천의 자연.
인천 작가의 스케치에 시민 여러분의 색과 빛을 입혀주세요.

이달의 드로잉 영흥도



명노선 작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서양화가다. 추계 예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했으며, 지금까지 40회가 넘는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했다.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대한민국 청년미술제>에 참가했으며, 2011년과 2012년에는 <세계평화미술대전> 초대작가로 출품했다. 2012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2015년 미추홀도서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2016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공로상, 2021년 인천남동구문화예술회 공로상을 수상했다. 한국미술협회 서양화분과 이사과 2016년 인천국제아트페어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제16대 인천미술협회 부지회장을 맡고 있다.



명노선 작가의 채색 가이드

▷ 2022년 4월의 시민 작가를 소개합니다!



김윤미 미추홀구 인화로



노시한 서구 서달로



변재운 남동구 농고개로



이태숙 서구 봉조제로



홍성수 남동구 앵고개로

▷ 컬러링 작품을 보내주신 시민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컬러링 인천' 보내는 방법]

① 우편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소통기획담당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② 이메일 : goodmorningic2022@naver.com

기간 : 2022년 5월 20일까지 문의 : 032-440-8305

※ 응모하실 때 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INFO BOX

1

서구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연중 상시 모집

장애인 직업 훈련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훈련 시간: 주 5일 훈련(오전 9시~오후 4시)
 장소: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천 서구 마중로 12)
 내용: 월 20만 원 훈련비 지급, 중식 제공
 신청 방법: 우편 및 방문 ㉢ sgjob01@daum.net
 문의: ㉠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032-569-7452

2

인천광역시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모바일 앱 '워크온'을 통해 함께 걸어요.



일자: 5월 1~31일
 참여 방법
 ①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워크온' 검색, 설치, 가입
 ② 홈 화면 하단의 챌린지 아이콘(트로피 모양) 클릭
 ③ '인천광역시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선택, 참여(그룹 지정)
 ④ 5월 한 달 스마트폰 지참하고 개별 걷기 실천
 ⑤ 목표 달성 후 리워드 응모권 클릭(커뮤니티 내 후기 작성)
 문의: ㉠ 인천광역시광역치매센터 032-472-2028

3

한국전쟁 진실 규명 신청 접수

한국전쟁 집단 희생이나 인권침해 사건 등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접수 기간: 12월 9일까지
 접수 방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 우편 및 방문
 문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02-3393-9700

4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인천광역시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보험 기간: 1년(가입자 필요에 따라 2~3년 장기 계약 가능)
 지원 규모: 70~92%(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인천시와 정부의 지원율은 가입자와 대상물, 군·구의 추가 지원 등에 따라 최종 결정
 - 군·구의 가입 상황에 따라 지방비가 조기 소진될 수 있음
 가입 방법: 5개 보험사 인천 지역 설계사
 - DB손해보험 010-8756-8034
 - 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 삼성화재해상보험 010-5215-8727
 - KB손해보험 010-5022-0204
 - NH농협손해보험 032-721-5383
 문의: ㉠ 시 자연재난과 기후지진팀 032-440-3359

5

서부여성회관 생활체육시설 참가자 모집

수영과 헬스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교육 기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 기간: 매주 셋째 주 또는 넷째 주 화~목요일(3일간)
 신청 방법: 온라인(서부여성회관 ㉡ www.incheon.go.kr/wiw)
 문의: ㉠ 서부여성회관 032-458-7388~9

6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휴(休)캠프 참가자 모집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을 제안합니다.

일정: 7월 16~27일(11박 12일, 교육청 협조 출석 인정)
 장소: 평택시무봉산청소년수련원(경기도 평택시)
 대상: 남자 중학생 24명
 비용: 식대 보조금 10만 원(취약계층 무료)
 신청 기간: 6월 30일까지
 문의: ㉠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2-721-2307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인천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따라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에 꼭 확인 후 참여 부탁드립니다.

7

연수문화원 수강생 모집

제79기 여름학기 문화학교
 내용: 미술, 음악 공예, 실용 등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강좌 기간: 6월 2일~8월 31일
 신청 기간: 5월 1일부터 선착순 마감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연수문화포털 ㉡ www.yeonsu.go.kr/culture)
 문의: ㉠ 연수문화원 032-821-6229

2022년 전통문화 예절학교

일자: 6월 11일~8월 27일(총 5기로 나눠 진행)
 장소: 원인재
 대상: 초등학교 전 학년 각 기수당 30명
 신청 기간: 5월 18일부터(선착순 마감)
 신청 방법: 온라인(연수문화원 ㉡ www.yeonsu.or.kr)
 문의: ㉠ 연수문화원 032-821-6229



8

서구청소년시설 체험 활동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국가 인증 수련 활동을 제안합니다.

제15회 서구청소년어울림마당 개막식
 일자: 5월 14일 오후 2~4시
 장소: 유튜브 '인천 서구 청소년올리고TV'
 (비대면 온라인 운영)
 신청 기간: 5월 6일까지
 문의: ㉠ 서구청소년센터 032-577-7979

청소년 미래적성분석 '나의 꿈, 찾아 드림'

일자: 5월 14일~6월 18일
 장소: 서구청소년센터
 신청 기간: 5월 6일까지
 신청 방법: ㉢ lys0908@issi.or.kr(선착순 마감)
 내용: 유튜브 크리에이터, 환경전문가 직업 체험
 문의: ㉠ 서구청소년센터 070-8177-3644

9

미추홀·석남 도서관 행사 안내

미추홀도서관
 - 비대면 인문학 특강 '로자와 함께 읽는 프랑스 문학'
 일자: 5월 2~23일 매주 월요일 오후 7~9시
 문의: ㉠ 미추홀도서관 032-440-6664
 - 비대면 집콕! 방구석 여행 '에스토니아 탈린'
 일자: 5월 24일 오후 7~9시
 문의: ㉠ 미추홀도서관 032-440-6666
 - 비대면 중년 특강 '자기 주도 인생 설계를 위한 버킷리스트'
 일자: 5월 10일·17일 오후 7~9시
 문의: ㉠ 미추홀도서관 032-440-6666

석남도서관

- 어린이날 기념 '바]코드네임: 안데르센'
 일자: 5월 1~31일
 내용: 인문학 강연, 도서 전시, 이수지 작가와의 만남,
 독후 활동 프로그램 등
 문의: ㉠ 석남도서관 032-560-2600

10

송도컨벤시아 행사 안내

2022 K-골프박람회 with 송도

일자: 5월 5~8일 오전 10시~오후 6시
 입장료: 3,000원
 문의: ㉠ K-골프박람회 032-541-3300,
 ㉡ www.k-golfexpo.com

제24회 인천베이비&키즈페어

일자: 5월 12~15일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
 입장료: 5,000원(사전 등록 무료)
 문의: ㉠ 세계전람 02-3453-8887, ㉡ www.ibabyshow.co.kr

제일창업박람회

일자: 5월 19~21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입장료: 5,000원(사전 등록 무료)
 문의: ㉠ 제일좋은전람 02-856-1402, ㉡ www.yesexpo.co.kr

인천 지명

새마을에서 셋별로, 효성동

계양구에 위치한 효성동은 지명의 유래가 자못 재미있다. 기록에 따르면, 1899년 당시 이곳은 부평군 마장면馬場面 효성리曉星里 지역이었다. 효성리라 불렀던 건, 이 지역은 수원水源이 없는 척박한 곳으로 온통 억새풀만이 무성한 황무지 벌판이라는 뜻의 ‘새풀’이라 불렀는데 발음이 와전되어 ‘새별’에서 ‘셋별’이 되었고, 한자로 기재되면서 ‘효성曉星’이 되었다. 또 다른 해석도 있다. 이 곳은 예로부터 말을 먹이던 ‘새벌(草原)’이었는데, 그 어휘가 변해 ‘새별’에서 ‘셋별’이 되었다는 것이다.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어감도 좋고 발음도 예쁜 효성이라는 지명으로 굳어졌으니 결론은 아름다운 셈이 아닐지.



2020년 효성동 ©계양기북보관소

효성동은 1940년 인천부에 편입되어 일본식 명칭인 서정曙町이 되었고, 광복 이후 1946년에 이르러 다시 옛 이름인 효성을 되찾게 되었다. 1990년에는 효성1동과 효성2동으로 분리되기도 했다. 효성1동의 경우에는 주택과 아파트가 밀집해 있으며, 효성2동은 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도로가 관통하고 있어 기업체가 많이 위치한다.

인천 소사

1986. 05. 31 새얼문화재단, 제1회 새얼백일장 개최 (송도 유원지)

새얼문화재단은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문화재단으로 1975년 근로자 자녀를 위한 장학회로 출범해 1983년 지역사회와 문화 발전을 위해 새얼문화재단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각계각층의 인사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며 장학사업, 역사기념사업 등을 진행한다. 그중 새얼백일장은 198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재단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제1회 대회 당시 141개 학교, 833명 참가자를 시작으로 매해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며, 전국의 학생과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 새얼백일장은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 일반부 등을 시와 산문으로 구분해 시상하며, 해마다 수상 작품집 <새얼문예>를 발간한다.

그때, 5월의 인천은...

1899. 05. 15	경인철도인수조합, 경인철도회사 설립 대한천일은행 인천지점 개점(한국계 유일한 은행)
1924. 05. 09	한국인이 경영하는 최초의 활동사진 상설관인 ‘애관愛館’ 개관
1960. 05. 26	인천문화회관 개관(중구 중앙동 소재)
1973. 05. 01	인천항 연안부두 개설
1975. 05. 09	인천실내체육관 준공
1990. 05. 04	인천시립박물관 개관(연수구 옥련동 소재)
2005. 05. 18	UN 산하기구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유치
2010. 05. 02	제3경인고속도로 개통

소래습지생태공원의 봄

사연 장영진(남동구 간석동)

마음 울적하고 알 수 없는 그리움에 가슴 아리면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찾곤 합니다. 열심히 움직이는 작은 계들을 보면, 부지런히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에 귀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습지의 풍경은 소박하고 목가적입니다. 습지는 언제 봐도 아름답지만 개인적으로 봄의 습지를 가장 사랑합니다. 눈을 감으면 처연한 짙레꽃 향기가 코끝에 어리고 비단결 같은 안개가 소리 없이 온몸을 감쌉니다.

줄지어 선 이팝나무는 고슬고슬 한 술 가득 꽃밥을 지어놓았습니다. 세상에 배고픈 것처럼 서러운 일은 없습니다. 보고픔에 허기지고 인정에 목마른 분들, 누구든지 오셔서 이팝나무의 푸근함을 빈 가슴 가득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손에 손잡고 이 길을 걷다 보면 우리네 가난한 마음도 어느새 밥내 솔솔 나는 한 그루 실한 이팝나무 꽃으로 푸른 하늘에 하얗게 필 것입니다.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仁生 사진관’은 일상 속에서 겪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사진으로 들여다보는 코너입니다. 인천을 무대로 살아가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며, 보내주신 사진을 실어 드리거나 직접 찾아가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보내실 곳 : goodmorningc2022@naver.com 문의 : 시 소통기획담당관실 032-440-8305

우크라이나인 사바찐과 제물포구락부

글·사진 김진국 본지 편집장



제물포구락부 실내, 구락부는 '클럽'의 일본식 발음이다.

자유공원 응봉산 중턱. 봄바람을 타고 연분홍 벚꽃잎이 ‘제물포구락부’ 맨사드 지붕 위로 나풀나풀 내려앉는다. ‘로마시티-제물포구락부에서 떠나는 로마 역사여행.’ 제물포구락부에선 지금 올해 첫 기획전시가 한창이다. 로마가 세계로 출발하는 글로벌 도시였다면, 제물포는 근대 조선이 시작된 국제도시였음을 드러내려는 취지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종교, 교육, 음악과 같은 서양 문물이 제물포로 처음 들어와 서울로 전해졌으므로 ‘인천은 우리나라의 로마’라는 관점이다.

짙은 밤색 톤 나무로 마감한 실내와 봄 햇살이 들어오는 아치형 창문, 그리고 귀부인의 장식품 같은 천장의 샹들리에. 제물포구락부 건물 내부는 개항기 외교관들의 협의 공간이자 사교 클럽답게 고전적 화려함으로 치장돼 있다. 제물포구락부는 인천 개항과 함께 밀물처럼 들어온 외국인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제물포에 세계 각국의 치외법권 지역인 ‘조계지’를 설정하면서 서구 열강은 공동 이익을 위한 ‘신동공사’란 이름의 회사를 설립한다. 신동공사는



2022년 4월 제물포구락부 전경

당시 근대건축가로 널리 알려진 우크라이나 출신 사바찐(Afanasii Ivanovych Seredin-Sabatin, 1860~1921)에게 설계를 의뢰한다. 그렇게 1901년 6월 22일 문을 연 제물포구락부는 외국인들이 술 마시고 당구를 치는 사교 클럽처럼 보였지만 실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뤄진 회의장이었다. <제물포 각국 조계지 회의록>(인천학연구원)에 ‘제물포정략’이란 말이 등장할 정도로 당시 조선을 둘러싼 열강들의 이권 다툼은 치열한 것이었다.

사바찐은 구한말 조선의 근대건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다. 우크라이나의 몰락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그가 제물포 땅을 처음 밟은 때는 1883년이다. 전문 건축 교육을 받지 못한 단순한 기술자였음에도 건축에 재능이 있던 그는 부두 축조 공사와 함께 인천해관 청사, 세창양행사택을 지으며 조선 조정의 신임을 얻는다. 각국 조계지와 각국 공원(현 자유공원)도 그의 작품이다. 이어 서울로 간 사바찐은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1년 동안 지낸 러시아 공사관, 경복궁 관문각, 독립문, 덕수궁 정관헌, 중명전, 손탁호텔을 설계했다.

사바찐은 을미사변(1895) 당시 경복궁 건청궁에서 있었던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직접 목격한 2명의 외국인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하다. 러일전쟁(1904) 이후 그는 조선을 떠나 러시아 곳곳을 방랑하다 1921년 쓸쓸히 눈을 감는다. 그로부터 한 세기를 건너온 2022년, 사바찐의 조국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푸틴의 침공으로 풍전등화에 놓였다. 우리나라 근대건축사에 선명한 족적을 남긴 사바찐. 그의 조국 우크라이나에 여름 해바라기처럼 환한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한다.



“인천앓뜰에 꿀벌 해치가 찾아왔어요”

“부~웅 부~웅.”

꿀벌 한 마리가 인천시청사 앞 ‘인천앓뜰’의 꽃향기에 취해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옮겨가며 꽃밭을 즐겁게 날고 있네요.

벌을 보고 있노라니 문득 어린 시절 TV 인기 만화영화 ‘꿀벌 해치의 모험’이 떠오릅니다.

꽃향기 넘쳐나는 5월,
시민 여러분께서도 인천앓뜰 꽃밭을 찾아 해치와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내시는 건 어떤가요?

글·사진 김진국 본지 편집장